

光日春秋

김정동



지금 독일에서는 월드컵 예선전이 한창이다. 우리 눈은 온통 독일에 있다. 참가국들은 가슴풀이며 그곳으로부터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다. 덕분에 극동 아시아 사람들은 밥집을 찾고 있다. 6월 10일 원예에서 시작된 경기는 7월 10일 베를린에서 끝난다. 우리는 지금 베를린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결승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베를린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베를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작년 이맘때쯤 베를린에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월드컵 참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곳 큰 길에는 월드컵 홍보관이 세워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이어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을 찾았다. 거대한 회색구조물이 압도했다. 70년 전의 함성이 들리는 듯 했다.

1936년 8월 1일 제11회 올림픽이 이곳에서 열렸다. 지금도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 내각이 진행해 '나치 올림픽'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올림픽 중의 올림픽, 역대 최고의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나치 깃발과 히틀러가 있었다. 독일의 나라 자랑에 참가 52개국 4천893명 선수들은 경영했다. 절모와 군화는 경기장 내외 분위기를 위압했다.

드디어 손이 결승선을 치렀습니다.”

남승룡도 3등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옹광스럽게도 금·동메달을 동시에 따낸 것이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일본방송 NHK도 라디오 중계를 했다. 올림픽 최초의 본격적 기록영화 '올림피아(일본명 '민족의 제전')'도 이때 촬영되었다.

당시 소설가 심훈도 손기정의 금메달 소식을 듣고 그 감격을 적었다.

'베를린 마리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남승룡 양군에게)

안고 느껴 느껴 울었으리라.

“오늘, 나는 와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세계의 인류를 향해서 와치고 싶다!

인제도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니!” 심훈(오오, 조선의 남아여! 中)

이 글은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있는 손기정의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

내가 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찾아갔을 때는 한창 보수공사 중이었다. 원형을 그대로 둔체 수용인원을 늘리는 작업과 현대화 작업을 함께 한 것이다. 그들은 새로 스타디움을 세울 수도 있으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의 경기장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다.

이 스타디움이 이번 월드컵을 맞이하여 보수공사를 마치고 월드컵 결전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스웨덴과 파라과이, 에콰도르와 독일이 각각 이곳에서 예선전을 벌였다. 안방에서 TV로 보는 스타디움은 새롭게 다가왔다.

그러나 중계하는 아나운서는 이 역사를 말하지 않고 있다.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손기정 선수가 결승선으로 들어오던 현장은 그대로 있다. 역사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대-한 민국!

〈목원대 교수·문화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정순열



붉은 물결이 춤을 춘다. 밤을 하얗게 새면서까지 온 나라가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월드컵에 몰려있는 지금, 한쪽에서는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치밀한 대책을 준비해서 협상을 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은 월드컵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타깝다.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물론 정부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관세철폐 대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실제 미국의 지난해 총 무역수지는 8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답게 약 100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중 20% 정도를 대한민국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자가 77억 달러라는 점에서도 미국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대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세계시장과의 교류도 피할 수 없다.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품목이 이미 개방된 상

기고

김용하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참 희한 일이다.

국군의 날에는 군인들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이 긍지를 느낀다.

그런데 유독 스승의 날만이 그 주인 공들이 자랑스러워하거나 긍지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고, 감시(?)받고 자괴심에 젖는 일이 많음은 과연 무슨 까닭일까?

우리는 예로부터 바른 사람이 되도록 후진을 가르치는 교육자에 대해서는 공경심과 엄정한 예우를 강조하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날이 오히려 학교를 문닫게 하고, 교사들에게는 기피하고 싶은 날로 변질되고 말

소·고발 등 대응책을 수립하여, 어느날 갑자기 공문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법정에서 법에 호소하여 다툴을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교육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법이나 사회여론에 의존하거나 감정싸움을 벗어나서, 교육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선 교육자들이 국민의 사표로서, 영통한 제자들의 맑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추어 질 것인가 하

교권이 살아나려면...

았을뿐만 아니라, 존폐를 가지고 국민들의 논쟁이 될 만큼 그 의미가 추락하고 만 것이다.

교육자가 궁지에 몰리고 교권이 추락하는데는 극소수 교사들의 부조리나 잘못된 처신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현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일부의 잘못된 사건을 마치 엄청난 전체의 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일들이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교사들의 사기저하, 교육에 대한 불신등의 폐해를 살펴 볼 필요 있다.

절대다수의 교육자들은 교단 일선에서 힘든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묵묵하게 후진양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교권을 세워준다고 행정부에서 고

는 칠열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교사가 존경받는 일은 사랑과 인내로써 제자 앞에 나아가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교권확립의 첩경이다.

학부모들도 혹시나 내 자녀를 낭보보다 우대받기를 바래 신심이 결여된 물질로서, 교사를 낙으로 끌어내린 일은 없는가를 반성해 볼 일이다.

언론은 독자들의 단체포적인 흥미와 자극을 위해 평범하고, 사소한 일을 친소봉대하여, 교사를 펼쳐한 일은 없는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깊이 성찰하고, 제자리를 지킬 때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교원이 살아야 할 고유한 교육이 이루어져 바람직한 후진들이 길러질 것이다.

〈종암중 교장·수필가〉

월드컵과 한·미FTA

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 다양한 방식의 협상전략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간 협상에 앞서 농업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협상과정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리는 등 부

명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회, 설명회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두 나라간 교육구조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해 413억 달러를 수출하고,

306억 달러를 수입함으로써 10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농민축산물은 2억8천만 달러 수출에, 수입은 10배에 가까운 22억 달러에 이른다. 전체로는 흑자요, 농림축산부문은 적자다.

미국이 농업분야의 예외없는 개방을

태다.

그나마 농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 관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일순간 사라진다면 결론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은 불免 보듯 뻔하다.

물론 개방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개방에 따른 두려움에 가득차거나 어깨가 쪘진 농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농업정책과 협상대안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의 1차 협상에 이어 다음달 서둘러 2차 협상을 열린다. 이에 앞서 각 분야별로 공정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진정한 의견제시가 있어야 하고, 또 농업인의 목소리가 월드컵 협상에 물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어린이들도 지키는 교통신호 어른들이 위반해서야

얼마전 목포에 있는 집으로 책을 옮겨 놓기 위해 한 택배 취급소에 전화를 했다.

직접 집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해 6개나 되는 집을 힘들어 가지고 갔더니, 집 크기에 상관없이 상자당 5천원씩 받더니, 확인서를 쓰라는 것이다. 확인서 내용은 귀중품이나 중요한 물건이 파손될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내가 집의 안전운반을 책임지느냐”고 따졌더니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집을 운반할 수 없다고 해 일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시킨 대로 했

다.

다음날 미처 보내지 못한 4개의 물건이 있어 이번에는 대형 택배업체가 아닌 중소 택배업체에 전화했다. 직원이 직접 찾아왔다. 또 상자 크기에 따라 가격도 달라 택배 요금도 훨씬 적게 들었다. 물론 확인서를 쓰는 것도 틀이 있다.

오히려 그 직원은 “운반 중 물건이 파손되면 택배회사가 물어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분명 달랐다.

▲이정애·목포시 보광동

시설

이익·출세 노린 강성투쟁 노동계만의 일일까

외국자본 투자유치에 나서 화제를 모았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사회에 손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죄고 경영자 포럼에서 노사문화 변화와 노동계의 자기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노동운동권 일부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지키기 위해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독재정권 시절의 타성에 젖어 오면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노동운동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이 위원장의 소신 있는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일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한 노동운동가가 많을 수록 노사문화는 왜곡되고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투쟁 일부의 노동운동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막부가 내식의 강경 투쟁을 주도한 뒤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구태의연한 투쟁방식으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현업을 디딤돌로 삼아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은 노동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이론적 합리화에 학자들이 동원되고 언론이 출신들의 정·관계 진출이 비판받기도 했다. 경제 관료들이 정치권 입맛에 맞도록 경제 정책을 왜곡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약자 편에서 권력을 비판하던 초기의 순수성이 퇴색돼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이제 우리 사회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권리와 동시에 분명한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출세 지상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투쟁 일부의 노동운동으로는 시대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막부가 내식의 강경 투쟁을 주도한 뒤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육성의 반발에 부닥치자 급기야 외고 설립 인가권을 환수해버릴 수도 있다는 으름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국어고를 탓도의 대상으로 보는듯 한 느낌이다.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발표에 불복 했다가 밤을 철회한 것도 압력의 냄새가 난다.

서울의 문제이긴 하나 강북 학생들을 강남 고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학군조정을 들고나온 것도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하기보다 좋은 학교로 갈길을 터준다는 미봉책을 쓴다면 인기는 얻을지 몰라도 강북의 고교들의 몰락을 부를 건 뻔하다.

교육문제의 갈등은 여타 현안과는 달리 사설상 전 국민이 이해 당사자나 마찬가지인 만큼 지극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교육부는 어쭙잖은 아이디어로 새정책을 쓸어내기보단 현재 벌어져 있는 교육갈등들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無等鼓

“내가 휴즈를 갈면 당신은 스웨터를 짜고/ 일요일 아침이면 드라이브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잡초를 뽑고/ 더 이 상될 더 바라겠어요/ 내가 예순네 살이 되었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원할 건가요?”

영국의 전설적인 팝 그룹인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1967년 발표해 팝의 고전이 된 ‘예순네 살이 되었을 때’(When I’m Sixty Four)의 노랫말이다.

지난 18일 64회 생